

TV 지다이게키(時代劇) 서사 변용의 양상 연구

유 다 건*

(e-mail : yoodageon@gmail.com)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4. 『지다이게키 법정』 :
허구적 서술과 희극적 영상기법 |
| 2. TV 지다이게키 장르 형성과 특징 | 5. 맺음말 |
| 3. 『시공경찰』 :
개연적 역사서술과 다큐멘터리적 영상기법 | |

키워드 : 텔레비전시대극(TV Jidaigeki), 歴史ドラマ(Period Drama), 大河ドラマ (Taiga Drama)
チャンバラ時代劇(Samurai Cinema), 퓨전시대극(Fusion Traditional Drama)

1. 들어가기

지다이게키(時代劇)는 헤이안(平安)시대부터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 시대를 무대로 하는 영화, 연극, 텔레비전 드라마의 한 장르로 현대지다이게키(現代劇)와 구별된다¹⁾. 1960년대 초기까지는 지다이게키 영화가 활발하게 제작되었으나, 텔레비전 보급률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친 대중적 미디어인 TV에서

* 경북대학교, 강사, 한일 영상문화 전공.

1) 衛藤賢史(1999) 「小説「異聞浪人記」とシナリオ「切腹」の比較分析」, 『芸術学論叢13』, p.16.

衛藤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헤이안시대 부터 메이지 유신까지라는 시대를 기준으로 지다이게키를 정의하고 있으나, 鳥山는 지다이게키의 범위를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의 쇼와(昭和) 시대 초기까지로 보고 있다. 鳥山 掇(1993) 『テレビドラマ・映画の世界』 早稲田大学出版部, p.99. 그러나 쇼와시대를 무대로 하는 TV 지다이게키 작품은 극히 소수이며, 그 대부분이 가공인물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역사상 실존 인물을 다루는 TV 지다이게키의 서사양상과 그 변용의 고찰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메이지 유신까지를 다룬 작품들로 정의하고,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도 매년 수 십 작의 지다이게키가 생산되어 새롭게 재해석된 가상의 역사와 영웅 신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대 이후에 제작된 TV 지다이게키 작품들의 역사서사 양상에서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TV 지다이게키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는 영웅 신화의 소멸과 퓨전의 변용을 들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기존의 TV 지다이게키와는 다른 서사구조로 역사를 재해석, 창조한 『시공경찰(원제: 時空警察)²⁾』(니혼TV, 2001년~2005년)과 『지다이게키 법정(원제: 時代劇法廷)³⁾』(지다이게키 전문 채널, 2010년~2015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두 작품은 매회 다른 역사적 실존인물들을 다루고 있어 영웅성이 소멸되는 여러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대상이며, 타임 트래블이라는 동일한 모티브는 퓨전의 변용 양상을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각 에피소드의 서사구조와 영상 기법을 분석하여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웅 신화가 소멸되며 퓨전이 변용되고 있는지를 고찰할 하고 이상의 논의를 통해 TV 지다이게키 변용의 성과와 의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2. TV 지다이게키 장르 형성과 특징

‘지다이게키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작품은 1923년에 제작된 영화 『女と海賊』으로, 당시에는 ‘구극(旧劇)’으로 통용되고 있던 장르명을 ‘지다이게키’로 바꾼 호시적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와 같이 ‘지다이게키’라는 장르명은 영화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원류는 닌교조루리(人形浄瑠璃)와 가부키(歌舞伎)에서 찾을 수 있다⁶⁾. 닌교조루리와 가부키의 상연목록(演目) 중, 나라(奈良), 헤이안(平安), 가마쿠라(鎌倉), 무로마치(室町)시대를 배경으로 귀족과 무사들

2) 『시공경찰』은 전5화로 편성된 특집극 형태의 작품으로 각회는 3~5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역사적 실존인물과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일본사뿐만 아니라 케네디 암살사건이나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 등,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나 본 논고에서는 일본의 역사적 인물을 다룬 에피소드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3) 『지다이게키 법정』은 시리즈극으로 2016년 현재까지 10회로 편성, 방영되었다.

4) 이병훈은 시대극을 해방 전후와 6.25동란 직후인 1950년대 말까지를 시대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시대극과 일본의 지다이게키는 다른 개념이므로 본 논고에서는 지다이게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병훈(1997) 「TV史劇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p.11.

5) 稲垣浩(1981) 『ヒゲとちよんまげ 一生きている映画史』中央公論新社, p.45.

6) 岩本憲児 編集(2005) 『時代劇伝説—チャンバラ映画の輝き』森話社, p.10.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다룬 것은 지다이모노(時代物)라고 하며, 서민들의 일상과 풍속을 다룬 것은 세와모노(世話物)라고 한다. 즉, 에도시대의 지다이모노는 현재의 지다이게키에, 세와모노는 겐다이게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다이게키라는 장르의 드라마를 통해 역사가 재연되듯이 에도시대에도 에도 이전의 역사는 전통예능을 통해 작품화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닌교 조루리와 가부키를 원류로 영화에서 TV로 전이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1960년을 정점으로 지다이게키 영화는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지다이게키 왕국이라 불리던 도에이(東映)의 야쿠자영화 제작이라는 노선 변경과 지다이게키 영화를 양산해 오던 다이에이(大映)의 도산은 지다이게키의 무대가 영화에서 TV드라마로 옮겨지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다⁷⁾. 이와 더불어 황태자의 결혼 퍼레이드 중계와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상승된 텔레비전의 보급률도 TV지다이게키의 본격적인 제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수순으로 제작된 TV 지다이게키 작품은 지다이게키 영화의 제작방식이나 소재를 그대로 차용하게 되고, 지다이게키 영화의 주류였던 검극, 속칭 찬바라⁸⁾ 역시 TV 지다이게키의 주된 테마로 설정된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TV 지다이게키 제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⁹⁾. 이러한 현상은 지다이게키의 특성상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반면 시청률은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볼 수 있다¹⁰⁾. 지상파 방송의 TV 지다이게키 제작과 방송 감소의 영향으로 지다이게키 전문 채널(時代劇専門チャンネル)이 1998년에 신설되었다. 유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입자 수가 증가¹¹⁾하고 있는 것은 TV 지다이게키의 고정된 시청자 층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TV라는 매체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TV에 의해 발신되는 역사 스토리텔링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도 필요하며, TV 지다이게키의 분석을 통해 역사 재해석과 평가에 투영된 사회 문화적 가치관과 역

7) 春日太一(2014) 『なぜ時代劇は減びるのか』新潮新書, p.16.

8) 찬바라는 칼이 부딪히는 소리의 의성어로서 검극의 속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9) 2000년대에 들어 찬바라 TV 지다이게키는 시리즈극에서 단막극 형태로 편성이 바뀌었고, 특집극 형식의 단막극인 신춘 와이드 지다이게키 역시 2000년 이전에는 러닝타임이 12시간이었으나 최근 작품은 3~5시간으로 축소되었다. TV드라마 데이터베이스 <http://www.tvdrama-db.com/>(최종검색 2016년 6월20일)

10) 春日太一(2014) 위의 책, p.56~p.58.

11) 1998년 개국 당시에는 50만 세대가 가입하였으나 2010년에는 100만 세대를 돌파하였고, 2015년 12월 현재 8,141,803 세대가 지다이게키 전문채널을 시청하고 있다.

J-CAST뉴스 <http://www.j-cast.com/2011/12/10115176.html?p=all>

CAB-J 위성TV 광고 협의회 <http://cab-j.org/data/>(최종검색 2016년 7월 28일)

사관의 변화도 추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사극 열풍에 힘입어 역사 드라마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도 활성화 되어있다. 그러나 일본 국내에서는 TV 지다이게키를 비롯하여 타 TV드라마에 관한 연구 역시 부진한 실정이며, 반세기를 넘는 TV 지다이게키의 계보를 정리한 연구 자료¹²⁾는 비교적 풍부하나 각각의 작품을 분석한 선행연구도 미비하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에 비해 연구가 진전되어있는 영화 작품에 관한 비평이나 리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몇몇 TV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학문적인 리뷰나 비평도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¹³⁾.

본 논고에서는 연구대상 작품들의 서사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주창윤의 역사서술방식¹⁴⁾ 분류를 채택하였다. 주창윤은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을 기록적, 개연적, 상상적, 허구적 방식으로 나누고, 역사드라마 각각의 장르구성체가 장르혼합을 통해 발전, 소멸되는 과정을 규명하였다. 역사서술방식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표1> 주창윤의 역사서술방식과 주요 특징

기록적 서술방식	개연적 서술방식	상상적 서술방식	허구적 서술방식
역사자료를 토대로 한 서술방식	역사자료에 작가의 해석을 지배적으로 활용	역사자료보다 작가의 상상력이 우세하게 작용	역사적 배경만을 채택한 허구

TV 지다이게키를 헤이안시대부터 메이지유신까지를 무대로 하는 작품이라는 정의 하에 서사내용과 등장인물, 시대배경, 주창윤의 역사서술 방식 등으로 나누어 분류해 보면 아래의 <표2>과 같다.

12) 能村庸一(1999) 『実録テレビ時代劇史』東京新聞出版局, 樋口尚文 (2012) 『テレビ・トラベラー: 昭和・平成テレビドラマ批評大全』国書刊行会, 近藤 ゆたか (1997) 『蔵出し絶品TV時代』フィルムアート社 등이 있다.

13) 영상 작품의 비평이나 리뷰를 다루는 전문적인 잡지로는 『GALAC』(放送批評懇談会), 『放送レポート』(メディア総合研究所), 『放送文化』(NHK出版), 『新・調査情報』(TBSメディア総合研究所), 『月刊民放』(日本民間放送連盟) 등이 있으나 TV 지다이게키에 대한 비평과 리뷰는 부족한 실정이다.

14) 주창윤(2004)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제48권』, p.174.

<표2> TV 지다이게키 분류

서사 내용	역사적 실존인물의 일대기		권선징악을 제재로 한 찬바라극		과거를 경험하는 현대인
주요 주인공	실존인물	실존인물	실존인물	가공인물	실존인물과 가공인물이 공존
주요 시대 배경	헤이안시대 ~ 메이지유신	헤이안시대 ~ 메이지유신	에도시대	에도시대	전국시대 ~ 에도시대
주요 작품	『大河ドラマ』 (NHK)	『新春ワイド時代劇』 (TV도쿄)	『水戸黄門』 (TBS)	『三匹が斬る!』 (TV아사히)	『幕末高校生』 (후지TV)
편성	1년 50회	특집 단막극	장편, 시리즈	장편, 시리즈	중편, 시리즈
역사 서술 방식	개연적	개연적	상상적	허구적	상상적
특징	실존인물의 영웅성을 강조하고 교훈적인 인물을 창조		실존인물의 영웅화	가공의 영웅창조	타임 트래블을 모티브로 한 퓨전극
허 구 성					

시대별 대표적인 찬바라 TV 지다이게키에는 『三匹の侍』 (1963년~1969년), 『必殺仕掛人』 (1972년~1973년), 『江戸を斬る』 (1973년~1974년), 『水戸黄門』 (1969년~2011년), 『暴れん坊将軍』 (1978년~2002년), 『長七郎天下ご免!』 (1979년~1982년), 『三匹が斬る!』 (1987년~1995년, 2002년) 등이 있다¹⁵⁾. 이와 같은 찬바라 TV 지다이게키의 주요 내용은 무고한 백성을 핍박하는 악당과 백성을 구제하는 영웅을 창조하는 권선징악형 스토리로, 선과 악이 뚜렷한 이분화 구조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실존인물을 그려내는 작품에

15) 能村庸一(1999) 『実録テレビ時代劇史』 東京新聞出版局, p.456.

비해 세세한 고증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픽션 구성은 작품제작의 용이성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대부분의 작품이 시리즈나 장편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제작된 작품수가 많아 찬바라극이 TV 지다이게키의 주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찬바라 TV 지다이게키와 상반된 작품으로 대하드라마와 신춘 와이드 지다이게키를 들 수 있다. 찬바라 작품들이 만들어낸 영웅은 대부분이 가공인물인 것에 비해, 대하드라마와 신춘 와이드 지다이게키는 역사적 실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찬바라 TV 지다이게키도 제작되었지만, 이러한 작품들 역시 선악의 이분화 구조와 권선징악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하드라마나 신춘 와이드 지다이게키와는 구분된다. 대하드라마와 신춘 와이드 지다이게키는 역사적 실존인물의 영웅성을 강조하고 교훈적인 인물상을 창조하고 있지만 권선징악형의 이분화구조를 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역사상 실존 인물을 다룬 대표적인 찬바라 TV 지다이게키에는 미토 미쓰쿠니(水戸光圀)를 주인공으로 하는 『미토고몬(원제: 水戸黄門)』과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가 주인공인 『아바렌보 쇼군(원제: 暴れん坊将軍)』, 겐로쿠 아코(元禄赤穂) 사건을 다룬 『주신구라(원제: 忠臣蔵)』 등이 있다. 찬바라 TV 지다이게키는 가공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열거한 작품들의 주인공인 실존 인물과 사건은 수차례에 걸쳐 찬바라 TV 지다이게키로 제작되었는데 찬바라극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칼싸움 장면의 연출이 용이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TV 지다이게키의 분류를 통해 그 특징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았다. 본 논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작품들은 TV 지다이게키의 하위 장르에 속하는 퓨전극으로 TV 지다이게키의 소재와 서사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양상을 다음 장에서 분석해 보겠다.

3. 『시공경찰』: 개연적 역사서술과 다큐멘터리적 영상기법

『시공경찰』과 『지다이게키 법정』은 과거로의 회귀와 현재로의 소환이라는 상반된 서사구조의 작품이다. 그러나 타임 트래블(time travel)이라는 동일한 매체를 통해 구축된 가상의 시공간에서 역사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

운 평가를 제시하는 플롯(plot)은 동일하다. 타임 트래블은 TV드라마와 같은 픽션 작품에서 흔히 사용되는 모티브이다. 타임 트래블을 모티브로 하는 2000년대 이전의 TV 지다이게키는 과거를 경험하는 현대인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¹⁶⁾된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제작된 TV 지다이게키는 가상의 공간에서 역사상의 실존 인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역사적인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본 논고의 연구대상 작품 이외에도 『노부나가의 셰프 Part1(원제:信長のシェフ)』(TV아사히, 2013년), 『노부나가 콘체르토(원제:信長協奏曲)』(후지TV, 2014년), 『노부나가의 셰프 Part2 (원제:信長のシェフ)』(TV아사히, 2014년)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작품들은 시공간을 이동한 현대인이 주인공이었던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역사적 실존인물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고, 시공간을 이동한 현대인들은 역사적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역사 해석과 평가를 제시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2000년대 이후 타임 트래블을 모티브로 하는 TV 지다이게키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시공경찰』은 “사실을 근거로 한 역사 추리드라마(事實に基づいた歴史推理ドラマ)”라는 설정 하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와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사카모토 료마(坂本竜馬),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와 같은 역사적인 거물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물들은 TV 지다이게키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작품화되었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간에 두고 영웅 신화를 반복 창조해왔다. 그 영웅 신화의 대부분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라는 대의명분하에 난세를 평정하는 교훈적인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시공경찰』은 보편화된 영웅 신화의 감추어진 뒷면을 추적하여 새로운 평가를 제시하는 서사구조 속에서 역사적 인물의 영웅성을 소멸시킨다. 전5화로 구성된 시리즈 작품으로 각각의 에피소드는 문제 제기, 과거로의 회귀, 사건 수사, 새로운 평가 제시라는 3단계의 서사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다룬 에피소드는 이에야스 가계무샤(影武者)설을 토대로 오사카나츠노진(大坂夏の陣)에서 전사한 이에야스를 대신해 에도막부를 수립하고 막부의 기강을 확립한 것은 오가사와라 히데마사(小笠原秀政)라는 평가를 제시한다. 이

16) 주요작품으로는 『夕ばえ作戦』(NHK, 1974년), 『幕末未来人』(NHK, 1977년), 『終りに見た街』(TV 아사히, 1982년, 2005년), 『大江戸神仙伝』(니혼TV, 1985년), 『幕末高校生』(후지TV, 1994년), 『天晴れ夜十郎』(NHK, 1996년) 등이 있다. 池田百男(1998) 『テレビ時代劇』アスペクト, p.211.

러한 평가로 인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웅성은 반감된다. 주신구라를 다룬 에피소드에서도 겐로쿠 아코사건은 기라 고즈케노스케(吉良上野介)를 견제하기 위한 야나기사와 요시아스(柳沢吉保)의 책략이라는 평가를 제시한다. 오이시 구라노스케(大石 内蔵助)를 비롯한 가신 47명의 충성심을 소재로 가부키와 영화, TV 지다이게키 등을 통해 수차례 작품화된 주신구라는 일본을 대표하는 미담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시공경찰』의 새로운 평가는 정치적 책략에 의한 권력투쟁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아코로시(赤穂浪士)들의 충성심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 역시 퇴색된다. 『시공경찰』의 각 에피소드는 정사가 아닌 가설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객관적 영상자료 제시와 다큐멘터리적 영상기법을 도입하여 역사의 간극을 채워 새로운 평가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혼노지의 변(本能寺の變)과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암살 사건을 다룬 2개의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서사구조와 영상기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혼노지의 변과 사카모토 료마는 TV 지다이게키의 빼놓을 수 없는 소재로서 많은 작품들이 생산되어 있어 TV 지다이게키의 새로운 서사 양상의 논의에 있어 비교 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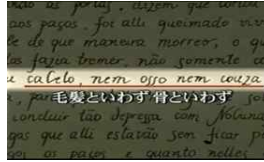
제4화에서는 혼노지의 변을 다루고 있는데, 혼노지가 불길에 휩싸여 있었던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인간의 사체가 전소될 수 있을 만큼의 화력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발견되지 않은 오다 노부나가의 사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의문 제기 신(scene)에서의 주요 샷(shot)은 아래의 <사진1>과 <사진2>를 들 수 있다. 루이스 프로이스(Luis Frois)의 『일본사(日本史)』를 클로즈업(close-up)시킨 영상과 익스트림 클로즈업(extreme close-up)을 이용하여 “모발도 유골도(毛髮といわず骨といわず)”라는 구절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선교사가 남긴 기록에 기묘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불탄 자리에 노부나가의 사체가 없었다는 것이다.(宣教師の残した記録に奇妙なことが記されていた。その焼け跡に信長の死体がなかったというのだ。)”라는 내레이션(narration)이 보이스오버(voice-over)¹⁷⁾의 형태로 덧붙여져 있다. 실존하는 영상자료의 제시와 같은 다큐멘터리적 서사는 작품이 제기하는 의문과 가설에 대한 설득력과 신빙성을

17) 보이스오버(voice-over)란 대사나 해설의 화자가 스크린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외화면 음향(offscreen sound)속하는 영상기법이다. 주로, 회상이나 부연 설명, 다큐멘터리 진술, 전지적 시점의 내레이터 등에 이용된다. 데이비드보드웰(1993) 『영화예술』 이론과 실천, p.587. 『시공경찰』에서는 실존하는 영상자료에 보이스오버를 도입하여 다큐멘터리적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다.

증가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된다. 『시공경찰』이 도입한 다큐멘터리적 서사 기법¹⁸⁾은 2000년대 이전의 TV 지다이게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진1>



<사진2>

혼노지의 변이 일어난 1582년으로 시공간을 이동한 수사대는 오다 노부나가와 예수회의 관계를 밝히는데, 그 당시 오다 노부나가는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예수회를 통해 화약을 구입하고 있었고, 예수회의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 탄압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다 노부나가 암살당한 이유 또한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오다 노부나가의 처사에 불만을 품은 예수회가 아케치 미쓰히데를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혼노지에는 화약고가 있었고, 단순한 화재가 아닌 폭발이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는다. 이러한 서사과정을 정리하면 문제 제기, 과거로의 회귀, 사건 수사와 새로운 평가 제시로 구분할 수 있다.

시공간의 이동은 시공 엘리베이터(<사진3>, <사진4>)를 통해 이루어진다. 타임 트래블을 모티브로 하는 기존의 TV 지다이게키에서는 주로 사고나 추락, 지진 등으로 인한 타의적인 시공간 이동¹⁹⁾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시공경찰』에서는 자의적인 타임 트래블이 행하여진다. 자의적인 타임 트래블 역시

18) 다큐멘터리는 실제사건을 관찰자적 시점에서 허구성 없이 묘사한 것이다. 이에 비해 다큐드라마는 실제사건을 드라마 형태로 재연한 것으로 주로 역사적, 정치적 사건을 다룬다. 다큐멘터리나 다큐드라마는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보통 다큐멘터리에서는 실사영상을, 다큐드라마에서는 실사영상과 재연영상을 적절히 혼용한다. 『시공경찰』에서는 작품이 제시하는 역사평가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사영상이나 도표영상을 삽입하여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타임 트래블을 모티브로 하는 픽션 작품이므로 다큐멘터리의 특징인 사실주의 기법을 활용한 페이크 다큐(fake docu)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TV 지다이게키에서 다루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허구가 아닌 실제사건이므로 허구가 가미된 사실을 표방하는 다큐픽션의 영역에 속하는 작품들도 있지만, 『시공경찰』은 가설을 토대로 한 허구성이 강한 작품이므로 다큐픽션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영돈(2014) 『영상 콘텐츠 제작 사전』 커뮤니케이션북스, p.109.

19)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타의적인 시공간 이동은 타임 슬립(time slip)이라고 하며, 타임 트래블의 하위개념이라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전의 TV 지다이게키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역사로의 적극적인 관여를 표출하는 적절한 모티브라 할 수 있다. 시공 엘리베이터는 자의적인 타임 트래블을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사진4>와 같은 로우앵글샷(low angle shot)은 웅장함과 판타지성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²⁰⁾를 내며, 이러한 영상에 의해 픽션 작품으로서의 오락성과 재미는 배가된다.



<사진3>



<사진4>

사건 수사와 새로운 평가 제시 단계에서는 <사진5>, <사진6>과 같이 신분을 감추지 않은 시공경찰 수사대가 연출되어져 픽션 작품으로서의 허구성이 증대된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과 수사대의 복장에 차이를 둬으로써 객관적인 수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함의를 표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 속 수사대원의 위치는 항상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거나(<사진5>) 역사적 인물과 대등한 위치(<사진6>)에서 찍은 영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상언어에 입각해 해석하면²¹⁾ 이 또한 외부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수사라는 묘사가 된다. 『시공경찰』은 픽션 작품적인 영상연출에 있어서도 작품이 제시하는 새로운 평가의 신빙성을 의식하여 적절한 영상언어를 도입하고 있다.



<사진5>



<사진6>

시공간의 이동과 역사적인 인물과의 접촉, 수사의 단계가 픽션 작품 고유의 허구적 묘사인 것에 비해, 새로운 평가 제시에서는 다큐멘터리적 기법이 도입

20) 今泉容子(2004) 『映画の文法』 彩流社, p.268.

21) 피사체의 배치를 중심의 위치(centrality)에 놓음으로써 역학관계에서의 대등함이 표현된다. 위의 책, p.255.

되어 있다. <사진7>, <사진8>과 같은 실사영상과 이해를 돕기 위한 도표영상 (<사진9>)에 오다 노부나가의 불교 탄압정책과 예수회를 통한 화약 매입 루트와 같은 사료를 바탕으로 한 내레이션이 제시된다. 이러한 서사구조와 영상을 통해 작품이 재해석한 오다 노부나가는 예수회에게 이용당하는 인물이며, 아케치 미쓰히데 역시 예수회의 술책에 넘어간 인물에 불과하다. 『시공경찰』은 다큐멘터리적인 영상연출과 픽션 작품적인 영상연출을 적절히 혼용하여 역사가설의 객관성과 픽션 작품 특유의 오락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영상 장치를 통한 서사구조 속에서 전국시대를 평정한 오다 노부나가의 고정화된 영웅성을 소멸시키고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단편적인 가치기준을 유동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진7>



<사진8>



<사진9>

『시공경찰』이 재해석한 혼노지의 변은 2004년 다치바나 교코(立花京子)가 발표한 예수회 음모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수회 음모설은 혼노지 변의 요인을 분석한 수많은 가설 중의 하나로 오다 노부나가는 “예수회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²²⁾.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학설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역사학계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지만, TV 지다이게키라는 픽션 작품의 세계를 통해 그려진 예수회 음모설은 역사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작품이 추구하는 “사실에 근거를 둔 추리”라는 모토에 걸맞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닌 타당성 있는 추리가 된다. 혼노지 변의 요인은 정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와다 테쓰오(小和田哲男)는 그의 저서를 통해 “일본역사의 불가사의²³⁾”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다. 미궁의 역사를 가설화하고 추리가 허용되는 것은 픽션 작품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 상상력을 십분 발휘 할 수

22) 立花京子(2004) 『信長と十字架—「天下布武」の眞実を追う』 集英社新書, p.87.

23) 小和田哲男(2014) 『明智光秀と本能寺の変』 PHP研究所, p.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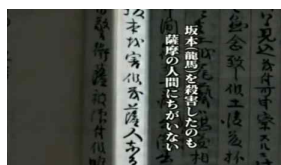
있는 TV 지다이게키라는 장르는 있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역사 해석의 통로이기도 하다. 작품이 만들어 낸 가설의 시시비비를 떠나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된 역사적 사실과 인물상의 제시는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겠다.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의 암살 사건을 다룬 편에서도 또 다른 영웅상의 소멸을 분석할 수 있다.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당한 오미야(近江屋) 사건 역시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메이지 신정부가 체포한 범인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그 후 비밀리에 석방되었다는 사실에 수사대는 의문을 제기한다. 1867년 암살사건 당일로 시공간을 이동한 수사대는 사카모토 료마의 부인인 오료(お龍)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실행범으로 알려진 교토 미마와리구미(京都見廻組)의 대원인 이마이 노부오(今井信郎)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한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의적인 시공간 이동과 역사로의 적극적인 관여는 2000년대 이전의 TV 지다이게키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신선한 모티브라 할 수 있다.

의문 제기 단계에서는 오다 노부나가의 암살사건을 다룬 편과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적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오미야 사건 추리의 근거는 <사진10>의 히고향 국사자료(肥後藩国事史料)인데, “사카모토 료마를 살해한 것도 사쓰마 번 사람임이 틀림없다.(坂本龍馬を殺害したのも薩摩の人間にちがいない)” 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영상자료(<사진11>)로 제시한다.



<사진10>



<사진11>

오미야 사건의 범인은 여러 가지 가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교토의 치안유지를 담당하던 미마와리구미 대원의 소행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다²⁴⁾. 그러나 『시공경찰』이 재해석한 오미야 사건은 교토 미마와리구미설에 사쓰마 번(薩摩藩) 음모설을 접합한 새로운 가설이다. 실행범은 이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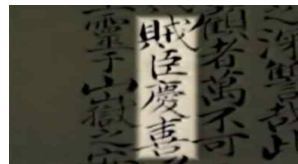
24) 松浦玲(2003) 『新選組』 岩波新書, p.154.

노부오이였지만 평화적 난세수습을 꿈꾸던 사카모토 료마의 암살을 사주한 사람은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시된 영상이 토막밀칙(討幕の密勅)을 클로즈업한 <사진12>와 <사진13>이며, 아래와 같은 내레이션을 보이소버로 덧붙인 다큐멘터리적 기법이 도입되어 있다.

“사건 당시, 도막파 내에서는 마지막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의 처우를 둘러싸고 큰 대립이 있었다. 무력으로 막부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도쿠가와 요시노부를 살해할 계획이었다. 사이고 측에서는 료마의 구상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事件当時、倒幕派内では最後の将軍徳川慶喜の扱いをめぐる大きな対立があった。あくまで武力によって幕府を徹底的に倒し、徳川慶喜を殺害する計画であった。西郷たちにとって龍馬の構想は許せるものではなかった。)”



<사진12>



<사진13>

사카모토 료마는 소설, 영화뿐만 아니라 TV 지다이게키에서도 수차례 작품화된 인물이며, 삿초(薩長)동맹을 이끌어 메이지 유신에 일조하고 쇄국과 개화의 과도기에서 과감한 결단으로 역사를 개척한 인물로 그려져 영웅화되어 있다.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역시 264년 동안 일본을 통치해 온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일본 근대화에 크게 공헌했고,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와 함께 유신 삼걸로 불리고 있다. 오쿠보 도시미치의 이러한 영웅성은 『시공경찰』이 제시한 사카모토 료마 암살 사주라는 새로운 가설에 의해 소멸된다. 극중의 오쿠보 도시미치는 “료마 한 사람의 목숨쯤, 망설일 필요가 없다.(龍馬一人の命のごつ、何の遠慮がいろいろ)”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설정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지만, 막부타도라는 같은 정치노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료마 암살을 사주했다는 작품의 평가는 오쿠보 도시미치의 영웅성 소멸에 있어서 타격적인 제시인 것이다. 또한, 막부와 도막파가 융합하여 평화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사카모토 료마의 보편화된 영웅성으로 인해 오쿠보 도시미치의 영웅

성 소멸은 용이해 진다.

이상으로 『시공경찰』의 서사구조와 영상연출 기법을 분석하여 영웅성 소멸의 과정을 도출해 보았다. 역사에 대한 의문 제기, 과거로의 회귀, 사건 수사와 새로운 평가제시라는 3단계 서사구조의 서술방식과 영상적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3>와 같다.

<표3> 『시공경찰』의 서술방식과 영상적 특징

서사구조	서술방식	영상적 특징
의문제기	개연적 역사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영상자료 제시 · 다큐멘터리적 기법
과거로의 회귀	허구적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간 이동의 자발성을 묘사 · 판타지적 기법
사건 수사와 새로운 평가 제시	허구적 서술 개연적 역사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영상자료 제시 · 다큐멘터리적 기법과 허구적 영상묘사를 혼용

『시공경찰』은 정설이 아닌 가설의 역사에 근거를 두고 가설의 타당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추리하고, TV 지다이게키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다큐멘터리성이 강한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그리고 기록적 역사서술방식에 의존해 역사적 실존인물을 영웅화시키고 교훈적 인물을 그려오던 기존의 TV 지다이게키 서사방식을 탈피했다. 다큐멘터리적 영상기법의 적절한 혼용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혹은 숨겨져 있던 역사적 의혹들을 개연성 있게 해소시키고 폭로함으로써 역사교육을 통해 고정되어 있던 영웅신화는 소멸된다. 기존의 TV 지다이게키 영역에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도입하여 장르를 넓힌 시도는 역사의 새로운 스토리텔링 창출로 이어지는 성과라 할 수 있다.

4. 『지다이게키 법정』 : 허구적 서술과 희극적 영상기법

『지다이게키 법정』 역시, 타임 트래블을 소재로 하는 기존의 TV 지다이게키와는 다른 서사구조의 작품이다. 과거라는 시공간 속의 이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생성되는 해프닝을 소재로 삼던 구성방식에서 탈피해 역사적 실존 인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새로운 평가를 제시한다. 전 10화로 구성된 각 에피소드에서는 핫토리 한조(服部半蔵),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 도쿠가와 요시무네(徳川吉宗), 가스가노 쓰보네(春日局) 등과 같은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은 뇌물수수죄, 사기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죄 등의 명목 하에 현재의 법정이라는 가상의 시공간으로 소환되고, 고착화 된 역사를 파헤쳐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제시한다. 기존의 TV 지다이게키에서는 주로 지명도가 높은 실존인물이나 가공인물을 다루고 있는 반면, 『지다이게키 법정』은 TV 지다이게키 장르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혹은 지명도가 높지 않은 인물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업적과 인물상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도는 동일인물의 반복 생산에 편향되어 있던 TV 지다이게키의 한계에서 벗어나 소재의 폭을 넓히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역사의 대중화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지다이게키 법정』이 다루고 있는 핫토리 한조를 비롯한 몇몇은 영웅으로는 평가되지 않은 인물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과 더불어 부적절했던 치세와 부작용을 동시에 제시하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영웅 신화를 창조하는 기존의 TV 지다이게키와는 차별화 된다. 『지다이게키 법정』은 지다이게키 전문채널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작품으로 유료채널이라는 점에서 본 논고에서 다루는 다른 작품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라는 동일 매체를 통해 발신되며, 역사적 인물들의 영웅성 소멸을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평가를 제시하는 TV 지다이게키의 새로운 서사양상을 규명하고자하는 본 논고의 취지에 적합한 작품이므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도쿠가와 요시무네와 가스가노 쓰보네를 다른 에피소드를 중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다이게키 법정』에서 다루는 지명도가 낮은 실존 인물들은 TV 지다이게키에서도 외면되어 영상화된 작품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도쿠가와 요시무네와 가스가노 쓰보네는 수차례 작품화 되었고, 기존의 작품들

과 『지다이게키 법정』의 새로운 서사 양상과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쿠가와 요시무네를 다룬 에피소드에서는 교호개혁(享保改革)의 부작용을 제시하고 있다.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침체되어 있던 막부권력을 재건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고, 백성들의 의견과 불만을 수용하기 위한 메야스바코(目安箱)라는 투서함을 설치하는 등, 교호개혁(享保改革)을 통해 에도 막부를 중흥시킨 명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다이게키 법정』이 평가하는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과도한 검약정책과 증세정책으로 백성들의 생활을 피폐시키고 경제와 문화를 정체시킨 인물에 불과하다. 또한 교호개혁은 표면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혁신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막부재정 재건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백성들을 상대로 시행된 검약정책은 사치 금지뿐만 아니라 일부 생활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소비욕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제품 생산, 판매를 금지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다이게키 법정』이 지적하는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부적절한 치세는 정책의 양면성에서 초래된 일종의 부작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교호개혁의 부작용을 제시하여 진정한 명군이 아니었다는 평가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역사 연구가와 같은 전문가를 도입한다. 이러한 서사과정에서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영웅성은 소멸된다. 작가이자 역사 연구자인 이자와 모토히코(井沢 元彦)가 등장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피력한다. 메야스바코 설치 역시, 표면상으로는 민심을 듣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투서에는 반드시 투서자의 이름을 기록해야 했다는 점과 메야스바코를 개봉할 수 있는 사람은 도쿠가와 요시무네 뿐이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백성이 쇼군에게 직소하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메야스바코의 설치는 혁신적인 시도였지만, 무기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지하려는 교묘한 언론통제의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몸소 실천했던 무명옷 착용이나 막부의 지출억제 등은 마땅히 행해야 할 공비절약에 불과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사회적인 규제는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보를 저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의 서사과정은 프롤로그(prologue), 현재로의 소환, 인물심판과 새로운 평가제시, 과거로의 귀환, 에필로그(epilogue)라는 5단계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명군으로 알려진 도쿠가와 요시무네를 심판하여 명군의 뒷면에 감추어진 부적절한 치세를 추궁하겠다는 검찰관의 굳은 의지가 묘사되어있다. 그러나 <사진14>에서 알 수 있듯이 희극성이 강한 현대극풍의 영

상으로 연출되어져, 기존의 지다이게키에 익숙한 시청자에게는 위화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한 희극적 기법의 도입은 역사와 범정이라는 모티브가 초래할 수 있는 경직된 이미지를 완충한다.

현재로의 소환 단계에서는 『시공경찰』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시공간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로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매체는 범정으로 통하는 문(<사진15>)으로,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사진16>와 같이 자발적으로 등장한다. 『시공경찰』의 자발적 시공간 이동이 역사로의 적극적인 관여라는 함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다이게키 범정』에서의 현재로의 소환에 대한 자발성은 작품의 새로운 평가에 대한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암묵적 동의라고 할 수 있다.



<사진14>



<사진15>



<사진16>

심판과 새로운 평가 제시 단계에서도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검약정책은 희극적으로 묘사되고(<사진17>, <사진18>), 정책의 부작용과 부적절한 치세는 역사전문가(<사진19>)의 피력으로 말미암아 타당성이 부여된다. 작품의 새로운 평가에 대해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해준 검찰관에게 감사의 뜻²⁵⁾을 전하는데, 앞서 서술한 암묵적 동의는 작품의 평가를 수용하는 도쿠가와 요시무네를 제시하기 위한 복선인 것이다.



<사진17>



<사진18>



<사진19>

25)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스스로의 과오를 알지 못한 채 웃음거리가 되었겠지.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해줘 고맙네.(お主がおりねば余は自らの過ちを知ることなく裸の殿様でい続けたことであろう。包み隠さずすべてを話してくれたことお礼を言うぞ。)

과거로의 귀환 단계에서는 <사진20>, <사진22>와 같이 빛의 콘트라스트(contrast)를 이용한 특수효과로 판타지성을 높이고,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자발적인 귀환을 묘사한 <사진21>와 같은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작품의 평가는 다시 한 번 타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적 서사는 평균으로 알려져 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영웅성을 소멸시킨 작품의 평가가 초래할 수 있는 위화감의 완충역할을 수행하며, 하나의 가설 제시임을 상기시키기 위한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에필로그 역시 검찰관의 하의지퍼가 열려있었다는 황당한 스토리로, 작품의 주요 테마와는 관련성이 없는 희극적 에피소드이다. 이러한 희극적 구성을 도입한 의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사진20>



<사진21>



<사진22>

도쿠가와 요시무네를 주인공으로 하는 대표적인 TV 지다이게키에는 『아바렌보 쇼군』과 NHK 대하드라마 제34화 『8대 쇼군 요시무네(원제:八代將軍吉宗)』(1995년)가 있다. 『아바렌보 쇼군』은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거리로 나와 백성들과 교류하며 세상에 만연한 악을 징벌한다는 권선징악물이다. 『8대 쇼군 요시무네』는 직계 출신이 아닌 요시무네가 쇼군(將軍)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교호개혁의 위대한 업적을 중심으로 전형적인 영웅 신화와 교훈적인 인물로서의 요시무네를 그려낸 작품이다. 이러한 기존의 작품과 비교할 때, 『지다이게키 법정』은 도쿠가와 요시무네의 수많은 업적이 초래한 부작용을 제시하여 고착화된 영웅성을 소멸시키고 있다. 또한 교호개혁의 결과를 상대적 관점으로 분석, 평가하여 제시함으로써 역사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TV 지다이게키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희극적인 서사를 대대적으로 도입했다. 희극적 서사 기법은 역사와 법정이라는 모티브의 경직된 이미지를 완화하고, 교호개혁에 관한 수많은 역사 정보의 용이한 전달에도 유용하게 작용된다. 또한, 희극적 기법이 지닌 허구성은 재미를 증대시켜 극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작품이 제시

하는 평가는 하나의 가설임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지다이게키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은데, 가스가노 쓰보네(春日局)는 영화뿐만 아니라 TV 지다이게키에서도 수차례 영상화 된 인물이다. 가스가노 쓰보네는 도쿠가와 역대 쇼군들의 정실, 측실, 자녀, 시녀들이 거쳐하던 오오쿠(大奥)를 조직적으로 정비하였고, 도쿠가와 이에미쓰(徳川家光)의 쇼군직 승계에 있어서도 크게 공헌해 정권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스가노 쓰보네를 주인공으로 하는 주요작품으로는 『大奥(1968년, 1983년, 간사이TV), 『徳川の女たち(1980년, 후지TV), 『春日局(1989년, NHK대하드라마) 등이 있다. 2000년대 이전의 TV 지다이게키에서는 가스가노 쓰보네의 공적을 중심으로, 도쿠가와 이에미쓰의 유모로서의 헌신적인 사랑과 교육열, 오오쿠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온 지도력 있는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그려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미쓰를 쇼군으로 승계하기 위해 애써 왔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작품의 중심 스토리로, 평화로운 시대를 희구한 여성으로 해석되어진 작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다이게키 법정』에서는 오오쿠의 실권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가스가노 쓰보네를 직권남용죄로 기소한다. 당시, 4인 가족 1년 생활비가 약 2냥 정도였는데 가스가노 쓰보네의 연봉은 200냥이었으며, 오오쿠의 1년 예산은 막부 전체 예산의 25%였다고 한다. 그 중 대부분이 오오쿠에서 일하는 시녀들의 의상비와 화장품 대금으로 지출되었고 급여 이외에도 의상비 명목의 보너스가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에는 조추부겐초(女中分限帳)와 부야쇼쿠담(武埜燭談)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영상으로 제시되고, 이로 인해 가스가노 쓰보네의 권력남용은 역사적 팩트로 인식된다.

『지다이게키 법정』은 가스가노 쓰보네의 공적을 그려낸 기존의 작품들과는 달리, 권력남용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역사적 인물의 이면을 그려냈다. 가스가노 쓰보네는 영웅화된 인물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평가를 제시하는 서사구조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창출되고, 역사적 인물의 미화에 편향되어있었던 TV 지다이게키와는 차별된다.

이상으로 『지다이게키 법정』의 서사구조와 영상연출 기법을 분석하여 영웅성 소멸과 부정적 이미지의 창출 과정을 도출해 보았다. 5단계 서사구조의 서술방식과 영상적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지다이게키 법정』의 서술방식과 영상적 특징

서사구조	서술방식	영상적 특징
프롤로그	허구적 서술	·희극적 기법 ·현대극풍
현재로의 소환	허구적 서술	·시공간 이동의 자발성을 묘사 ·판타지적 기법
인물심판과 새로운 평가 제시	개연적 역사서술	·객관적 자료 제시 ·희극적 기법
과거로의 귀환	허구적 서술	·판타지적 기법
에필로그	허구적 서술	·희극적 기법 ·현대극풍

『지다이게키 법정』은 역사적 실존 인물과 가상의 검찰관이 펼치는 진실 규명의 공방전에 역사연구가와 같은 전문가가 도입된 3중 구조로, 허구성이 높은 희극적 기법으로 연출된 작품이다. 그러나 인물심판과 새로운 평가 제시의 단계에서는 개연적인 역사서술을 토대로 역사적 인물의 업적이 제시되지만 작품이 평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완충 매체일 뿐, 영웅화를 시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5. 맺음말

이상의 작품분석을 통해 TV 지다이게키의 서사구조 변용을 규명해 보았다. 철저한 고증을 통해 정사에 근접한 정보를 발신하는 NHK의 대하드라마가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서 스테레오타입의 영웅 신화와 교훈적인 인물을 창조해 내고 있는 것에 비해, 『시공경찰』과 『지다이게키 법정』은 보편적인 영웅창조 서사구조의 방식에서 탈피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영웅 신화를 소멸시키고 있다. 또한, 과거를 경험하는 현대인을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다루던 종래의 퓨전 지다이게키와는 달리, 역사적인 실존 인물과의 직접적인 접촉

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역사에 관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변화된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다. TV 지다이게키의 퓨전 변용이 시도되는 이유는 기존의 TV 지다이게키가 창조해 온 영웅성 제시라는 범주에서 탈피해 역사적 인물의 새로운 인물상 창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타임 트래블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퓨전화를 통해 고정화 된 인물상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서는 읽어 낼 수 없는 또 다른 면모의 가설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이다. 역사적 인물의 평가에는 현대의 가치기준이 이입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과의 교류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가치기준을 비교하고, 재해석된 인물상을 제시하는 것은 TV 지다이게키 퓨전 변용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사료에 의존한 기록적 역사서술방식이 탄생시킨 영웅상과는 다른 인물상의 제시는 다각화된 역사 해석의 발로이며, 역사의 관망자라는 설정에서 벗어나 역사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가공인물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TV 지다이게키 서사구조 변화의 요인을 사회적 관점에서 찾아보면 역사 지식의 수용 통로가 확장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편화된 역사교육과 출판물의 증가, 인터넷 보급과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역사관련 정보는 용이하고 신속하게 발신되고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신하는 단순한 팩트나 구태의연한 영웅 신화의 창조보다 이해와 공감으로의 유도가 TV 지다이게키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축적된 연구 결과에 따른 새로운 해석과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며, 민감한 역사평가의 암묵적 금기가 해소된 사회적 분위기의 정착을 TV 지다이게키에서 읽을 수 있다. TV 지다이게키를 통해 스토리텔링되는 역사는 허구일 뿐이지만, 허구성과 역사적 상상력에 투영된 현재의 가치관과 역사관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매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고에서는 2작품만을 다루고 있으나 역사적 인물의 영웅성 소멸과 퓨전의 변용은 2000년대 이후에 제작된 TV 지다이게키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의 분석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태웅(2010) 「역사의 재현과 "역사영화" 제작운동 -미조구치 겐지의 <겐로쿠 추신구라>를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17권』,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25-39.

- 김기덕(2008) 「영상역사학 : 역사학의 확장과 책무」, 『역사학보 제200집』 역사학회, pp.99-130.
- 데이비드보드웰 저, 주진숙 역(1993) 『영화예술』 이론과 실천, p.587.
- 류철균, 서성은(2008) 「영상 서사에 나타난 대체역사 주제 연구」, 『어문학 제99집』 한국어문학회, pp.421-446.
- 주창윤(2004) 「역사드라마의 역사서술방식과 장르형성」, 『한국언론학보 제48권』 한국언론학회, pp.166-188.
- 이병훈(1997) 「TV 史劇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p.11.
- 池田百男(1998) 『テレビ時代劇』 アспект, p.211.
- 今泉容子(2004) 『映画の文法』 彩流社, p.268.
- 衛藤賢史(1999) 「小説「異聞浪人記」とシナリオ「切腹」の比較分析」, 『芸術学論叢13』. pp.16-28.
- 小和田哲男(2014) 『明智光秀と本能寺の変』 PHP研究所, p.110.
- 春日太一(2014) 『なぜ時代劇は減びるのか』 新潮新書, p.17.
- 近藤 ゆたか (1997) 『蔵出し絶品TV時代』 フィルムアート社.
- 立花京子(2004) 『信長と十字架—「天下布武」の真実を追う』 集英社新書, p.87.
- 鳥山 拓(1993) 『テレビドラマ・映画の世界』 早稲田大学出版部, p.99.
- 能村庸一(1999) 『実録テレビ時代劇史』 東京新聞出版局, p.456.
- 樋口尚文(2012) 『テレビ・トラベラー: 昭和・平成テレビドラマ批評大全』 国書刊行会.
- 松浦玲(2003) 『新選組』 岩波新書, p.154.

영상자료

- 『時空警察』 日本テレビ, Part1 ~ Part5.
- 『時代劇法廷』 時代劇専門チャンネル, 第1話~第10話.
- 『信長協奏曲』 フジテレビ, 第1話~第11話.
- 『信長のシェフ』 テレビ朝日, Part1 第1話~第9話, Part2 第1話~第8話.

WEBSITE

- J-CAST뉴스 <http://www.j-cast.com/2011/12/10115176.html?p=all>(최종검색일2016.6.20.)
- TV드라마 데이터베이스 <http://www.tvdrama-db.com>(최종검색일2016.6.20.)

논문 투고 일자 : 2016.0 8. 03. 논문 심사 일자 : 2016. 07. 25. 게재 확정 일자 : 2016. 07. 27.
--

 <要旨>

 テレビ時代劇の叙事構造の変容研究

劉多虔

本論考は2000年代以降に制作されたテレビ時代劇に見られる英雄神話の消滅とフュージョンの変容の様相を分析したものである。『時空警察』(日本TV、2001年～2005年)と『時代劇法廷』(時代劇専門チャンネル、2010年～2015年)を研究対象に、叙事構造の分析とショット分析を行った結果は以下のようである。『時空警察』は歴史的人物の不適切な治世を仮説化して提示している。しかし、客観的な映像資料やドキュメンタリー的手法の導入し、妥当性を与えており、このような叙事構造と映像手法によって歴史的実存人物の英雄性は消滅してしまう。そして、『時代劇法廷』はコメディータッチ風に演出され、既存のテレビ時代劇では見られない新しい試みを図っている。しかし、歴史的実存人物のすでに知られている功績の副作用や不適切であった治世を具体的に提示しており、歴史資料に基づいた映像を提示して客観性を持たせ、英雄性の消滅に挑んでいる。両作品で見られる各々の叙事構造や映像手法は既存のテレビ時代劇から領域を広げる大きな成果であると言える。

A Study on Narrative Structures of TV Jidaigeki

Yoo, Da-Geon

Jidaigeki is a genre of film, television, and theatre in Japan. Literally "period dramas", they are most often set during the Edo period of Japanese history, from 1603 to 1868. Many dramas are also produced every year by a television station. Since 2000, in particular, work made in their narrative structure has changed drastically. TV Jidaigeki one of the biggest changes was the extinction of the hero and fusion of transformation. I analyzed a broadcast TV Jidaigeki aired in the 2000's by this research and found out the feature of the narrative structure. And a product of a change and a point of a TV Jidaigeki were derived through the above mentioned discussion. NHK Taiga Dramas are making a heroic myth of a stereotype at a boundary of a fiction and nonfiction. And information near authentic history is being sent through historical investigation. When such thing will be compared, TV Jidaigeki breaks from the universal hero creation narrative structure and is making a hero myth become extinct. This is the big outcome the genre as the television Samurai movie accomplished. There is big significance to show relative and fluid historical perspective to a change in the hero myth which became more adherent. Another big change in a television Samurai movie has contact with a historical person and is that not an observation person of history, but the personality in which I participate aggressively is being produced.